박태원 교수의 (17)

불교로 보는 인생

진짜와 가짜의 분기점

일상의 타성적 안락보다 삶의 고통서 얻는 자유

요즘 나는 꽤나 호사를 부린다. 산사의 아늑함을 연상케 하는 전망과 환경에 끌려 지금 있는 거처를 마련한 것이 지난해 여름이다. 베란다에 흔들의자 하나 놓고는 눈앞 가까이 펼쳐진 산에 물드는 계절의 풍광을 만끽하며 공부도 흥내낸다. 부쩍 주위에 넘쳐나는 지친 호흡들을 떠올리면 미안한 마음이 고개를 들곤 할 정도이다. 산색에 물리면 비디오 가게를 기웃거리기도 한다. 언젠가 불연(佛緣) 지우(知友)인 성공회대학 신방과 김용호 교수를 철학과 초청강연회 연사로 불러 세웠더니, 이 친구 수많은 청중 앞에서 하는 말이 "박 교수는 아직도 비디오가 없는 야만인"이라 했던가. 그 말에 자극 받아 지난해 입주할 때 일부러 비디오 재생기를 마련했다. 처음에는 강의 소재 찾는다는 핑계로 시작했지만, 불만한 작품들이 생각보다 많아 요즘은 내킬 때마다 단골 비디오 가게를 찾는다.

오래 여운이 남는 작품 가운데 '세상의 모든 아침'이란 프랑스 영화가 있다. 출세가 보장된 왕궁악사의 박제된 삶을 외면하고, 고 궁극은 언어도 침묵도 아니야. 침묵은 단지 언어의 이면일 뿐. 음악은 지친 자, 길 잃은 자를 위한 것, 빛과 어둠, 생명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이어 아내의 환상을 보며 혼이 실린 생의 마지막 연주를 마친 스승은 그 사랑을 따라 물 속으로 들어간다.

진짜와 가짜는 어디에서 갈라지는 것일까. 삶의 고통이 그 분기점에 있는 것 같다. 화려해 보이는 삶의 토대가 얼마나 부실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절감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진짜 성숙과 가짜 미화가 갈라진다. 진정 깊이 만족하고, 크게 자유롭고,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누리려면, 일상의 타성적 안락과 허망한 들뜬 기대의 부실한 이면을 일단 거세게 헤집어 보아야 한다. 어설픈 미화나 어중간한 타협이 주는 평안은 비록 그럴 듯해 보이지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가짜배기. 진짜의 조건은 삶의 불안과 만족스럽지 못함에 대한 깊고 절절한 통찰이다.

영혼을 울리고 정화시키는 위대한 사상과 예술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격렬한 고통의 문을 통과한 것이다. 일상의 토대가 본질적으로 동요되는 '지침과 헤맴'을 겪어야 구원의 길이 제대로 눈에 들어온다. '크게 죽어야 크게 산다'는 선구(禪句)는 이 대목에서도 통한다. 그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마음의 자유와 최고의 만족으로 이끄는 부처님 가르침의 첫 출발은 '삶의 불만족에 대한 통찰(苦聖諦)'이 아니던가.

정치·경제의 엉터리 같은 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냉소와 허탈과 분노와 자학이 넘쳐난다. 그러나 밝게 보자. 큰 동요와 혼란, 격렬한 불안과 고통이 대비되어야 위대한 안락과 평안과 만족의 지평이 선명해지는 법. 어물쩍 덮어 버리거나 기만적으로 위장해 버리지 않는 정직함으로 당당하게 대면하자. 그럴 때 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현장은 진짜배기를 키우는 기름진 도량일 터. 내 일상의 요즘 호사를 짐짓 눈 치켜 뜨고 지켜본다.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uou.ulsan.ac.kr)

손가락 맞잡고 반가부좌 염송

참불자의 길

주력② - 진언 어떻게 하나

주력(呪力)을 얻기 위한 대표적 수행법인 진언(眞言)은 어떻게 해야 할까.

참된 부처님의 말씀이며 깨달음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의미의 진언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문(呪文)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진언은 주문을 외우듯이 단순하게 입으로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인(손가락을 맞잡는것)을 하고 염송(念誦)해야 한다.

경문에 나오는 진언은 대개 불·보살의 간절한 서원을 단 몇 마디에 함축한 것이므로 원어 그대로 독송하면 된다. 이때 머릿속으로는 그 뜻을 새기면서 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삼밀관행법' 널리 알려져

이런 진언 수행법 가운데 널리 알려진 것이 진각종의 기본 수행법인 '삼밀관행법(三密觀行法)'이다.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성과 나의 본성이 일여평등(一如平等)함을 체험하여 진리를 터득하기 위한 삼밀관행법은 몸으로는 금강권(금강지권)을 결인하고, 입으로는 본존(本尊)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며 머릿속으로는 본존을 관(觀)하는 수행법이다.

삼밀관행법을 행할 때는 절대로 불·보살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결인을 풀지 말아야 하며, '옴마니반메훔' 이외의 다른 말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결인한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머리를 긁는 등 흐트러진 행동도 삼가해야 한다.

삼밀관행 진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손가락을 맞잡고 하는 결인이다. 진각종에서는 거의 금강권과 금강지권을 한다. 앉거나 서서 삼밀관행법을 할 때 하는 결인인 '금강권'을 하려면 우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셋째와 넷째 손가락 사이의 셋째 마디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셋째·넷째·다섯째 손가락(이 세 손가락은 삼밀을 나타냄)으로 감싸면서 집게 손가락 끝을 구부려서 엄지 손가락의 첫째 마디에 갖다 놓으면 된다. 이때 왼손 바닥을 포개어 오른손을 덮는다.

정식으로 반가부좌하여 하는 결인인 금강지권은 우선 왼손으로 금강권을 하되, 집게 손가락을 세워야 한다. 다음으로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셋째와 넷째 사이의 셋째 마디에 놓은 후, 왼손의 집게 손가락을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연결시킨다. 마지막으로 오른손 집게 손가락 끝을 구부려서 엄지 손가락의 첫째 마디에 갖다 대면 된다.

◇비로자나 부처님과 나의 완전한 상응을 뜻하는 금강지권한 손모습.

진각종 종학연구실장 혜정 대정사는 "진언할 때 결인을 하는 이유는 부처님이 중생에게 법을 전할 때 결인하는 것에서 따온 것"이라며 "손을 맞잡는 인계를 하고 진언하면 법을 듣는 것 뿐만 아니라 설하는 것까지 포함돼 자신이 곧 법신이 되는 의미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염송 할 때도 먼저 호흡을 크게 세번 한 뒤 몸에 맺혀 있는 해로운 기운을 없앤 후, 본존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는 것이 좋다. 이때 호흡은 '옴마니반메훔'을 5회 정도 입으로 염송하면서는 날숨을 쉬고, 송함을 멈추면서는 순간적으로 코로 크게 들어마시는 들숨을 취한다.

어디서든 시간 정해놓고

관상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진각종에서는 '육자관(六字觀)'을 사용한다. 본존의 6자를 행자의 몸에 포자(布子)하면서 입으로 부른다.

진언을 부르는 장소는 어디든지 상관이 없으며 매일 10분, 1시간, 3시간, 7시간 등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정송(定誦)을 원칙으로 한다. 수를 세면 정신 집중이 안돼 마음이 산란해지기 때문이다.

혜정 대정사는 특히 진언 수행법을 많이 하면 우주 법계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부족이 채워지는 공덕력, 부처님의 가피력 등 세 가지 공덕을 얻을 수 있어 수행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언어는 견성으로 가는 중요한 수단

39 선과 언어 (3)

이제 조사선의 어록에서 언어와 관련한 언급이나 깨달음의 일화를 통하여 선과 언어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육조단경〉에서 혜능이 언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아보자.

오조 홍인이게 의발을 부촉받고 남쪽으로 피해 가는 혜능을 뒤쫓아와 법을 설해주기를 간청하는 혜명에게 준 혜능의 가르침은, "선도 생각지 않고 악도 생각지 않는 바로 이러한 때에, 무엇이 그대의 본래면목인가?"라는 말이었다. 혜명은 이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혜능의 첫 제자가 된다. 여기서 '선도 생각지 않고 악도 생각지 않는 바로 이러한 때'란 곧 모든 사량분별을 쉬어버린 때를 말하며(破邪이다), 모든 사량분별을 쉬어버린 때에 드러나는 것은 오직 여여한 자성뿐인데(顯正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면목이다.

이처럼 혜능의 가르침은 언어 곧 사량분별을 쉬어버린 곳에서 자성을 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량분별을 쉰다는 것이 무언(無言)의 침묵 속에 잠긴다거나 생각이 깨끗이 비어버린 허공 속에 머문다는 말은 아니다. 그렇게 한다면 도리어 공(空)에 집착하는 변견(邊見)에 빠지는 것이라고 혜능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선문(禪門)에서는 무념(無念)·무상(無相)·무주(無住)를 내세운다고 〈육조단경〉에서 말하는데, 이 때 무념이나 무상은 '생각(念) 속에서 생각이 없는 것'이며 '상 속에서 상을 벗어나는 것'이지, 생각과 상을 버리고 허무(虛無)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즉 무념은 생각 속에서 생각이 아닌 자성(自性)을 보는 것이며, 무상은 상 속에서 상이 아닌 자성을 보는 것이다. 이처럼 생각과 상 속에서 생각과 상에 머물지 않는 것이 곧 무주이다.

요컨대 상(相) 속에서 성(性)을 발견하라는 것이지, 상을 버리고 성을 찾으라는 말은 아니다. 성은 상이라는 작용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므로, 성만으로는 어떻게도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말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이지, 말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은 말을 잊고 고요히 앉아 삼매에 빠짐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법과 경청 혹은 문답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자성은 언어라는 상을 드러내는 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때문에, 자성의 파악은 언어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조사선에서 깨달음이 늘 '말 아래의 깨달음(言下便悟)'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이 점은 〈육조단경〉의 후반부에 혜능이 이른바 10대 제자들에게 종지(宗旨)를 잃지 않게 법을 설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부분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혜능이 가르치는 설법(說法)의 방식이란, 법을 설함에는 반드시 두 개의 상대법(한 쌍의 모순개념이나 상대개념)을 함께 제시하여 모든 법은 상대적이고 의존적으로 성립할 뿐 홀로 존재할 수 없음을 보임으로써, 두 상대법의 어느 쪽에도 머물지 않는 중도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이리하여 법이란 모두 상대적 사고체계 속에서 연기적으로 드러나는 관념적 구성물일 뿐임을 밝히고, 그와 같이 법을 연기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자성의 작용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자성은 물론 연기라는 작용으로 드러나지만 어떠한 상대법에도 속하지 않는다. 즉 자성은 다만 연기하는 작용일 뿐 어떤 법은 아니다. 다시 말해 자성은 지금 이 순간의 머무름 없는 작용일 뿐이다.

혜능이 설법이나 문답을 통하여 깨우치고자 한 것은 이처럼 언어동작 속에서 자성의 작용을 깨우치려 한 것이었다. 사실 〈육조단경〉과 그 이후의 조사선에서 기록되어 있는 깨달음의 사건들은 모두 설법을 듣거나 문답 도중에 말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들이며, 조사선을 계승한 후대의 간화선에서 깨달음의 방편으로서 화두(話頭)를 이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따라서 선에서는 언어를 십분 활용하여 견성을 추구하고 있지, 언어를 버리고 침묵을 지키기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언어는 견성을 향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柱推命學情解書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 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인간(人間)은 누구나 다 행복을 追求한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운명(運命)을 알고 그 運命에 대하여 대처(對處) 한다면 흉화(兇禍)의 액(厄)을 면(免)하고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바뀌지 않겠는가.
■ 중국은왕조의 갑골문의 기록으로부터 3천년이란 장구한 세월동안 수많은 선현석학들에 의해 끊임없는 실험을 거쳐 완성된 이 명리학이 왜 현대에 이르러 더욱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가? 마침내 벽에 부딪치고 그 한계를 드러낸 서양사상이 의지할 곳은 과연 어디인가?
어떠한 과학보다 더욱 과학적이며 어떠한 철학보다 더욱 오묘한 음양오행을 기초로 하여 선천을 파악하고 후천을 예지하는 청산 김성진 선생의「命理玉精」을 읽지않고 어찌 감히 운명을 감정한다 할 수 있겠는가!
화제의 신간

전국 서점 판매중!
정산 김성진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30,000원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저자는 생기론(땅기운)을 한국최초로 발견하였다.
국내 제일의 풍수지리서이다!
새 천년 새 풍수를 잡아라.
◆ 땅의 비밀(秘密)을 소개(紹介)한다.
1. 땅은 길지(吉地)와 흉지(凶地)로 나누어져 있다.
2. 집터(陽宅)와 묘터(陰宅)는 좋은(吉地)터와 나쁜터(凶地) 땅기운이 흩어진다.
4. 나쁜 집(凶宅)터에서 살면 각종 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5. 그러므로 땅에는 명가(名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6. 우리는 땅에서 나온 식물(植物)의 열매를 먹고 산다.
7.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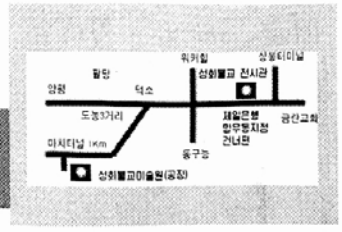
대도 김용식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A5신/양장본
값 40,000원
지금 절실이 당신이 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비로 이 책을 필저 보십시오.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용식 저/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임,전호일 공저/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坪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 /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양장본 이소옥 지음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 진소백 저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김윤중 편저/정가 1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광성B/D 3층T.921-8434 F.929-3470

청동불상 제작 전문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청동 불상, 천불, 삼천불, 만불, 개금, 탱화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주·야 상담합니다
※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1층)
성화불교전시관 · 성화불교미술원
전시관 : 02)2209-0080, 0081
공장 : 031)591-1022 핸드폰 : 011)302-1022